

희년! 선택을 기뻐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성 프란치스코)



후렴: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삼위이시고 일체이시오며
당신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전능하신 왕 이시나이다!

1. 당신은 선 자체이시며 지상 선이시나이다.
당신은 살아 계신 주님이시오며 참 하느님이시나이다 .
당신은 신들의 주 하느님 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세시고 위대한 분 이시나이다
2. 당신은 위대하시고 감탄하올 주님이시오며,
당신은 우리의 온전한 감미로움이시오며 희망이시오며,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온갖 보화이시나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지금까지 진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거의 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주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
합시다.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성 보나벤투라, 제 14장)



항상 앞으로 나아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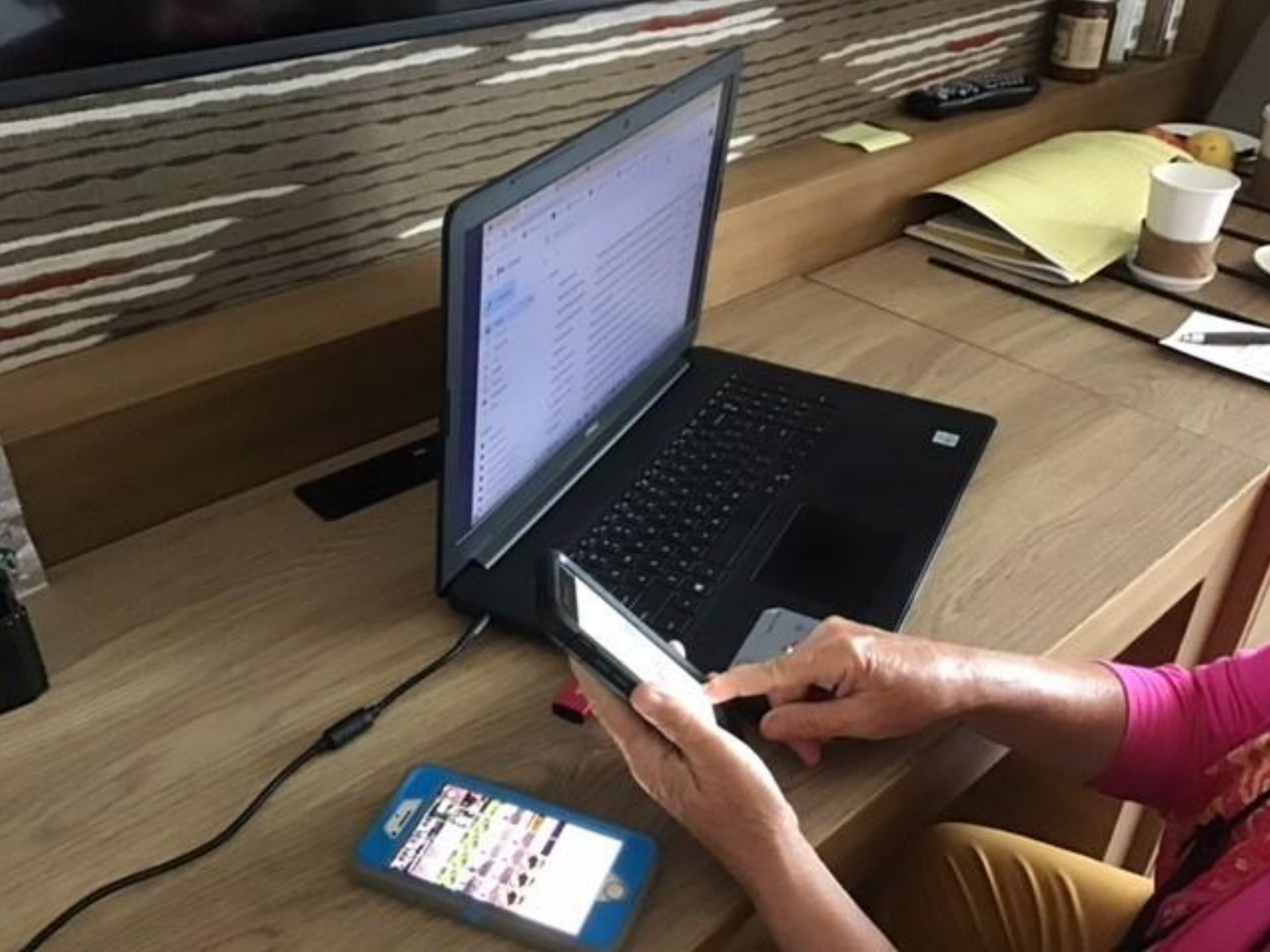
더 형제적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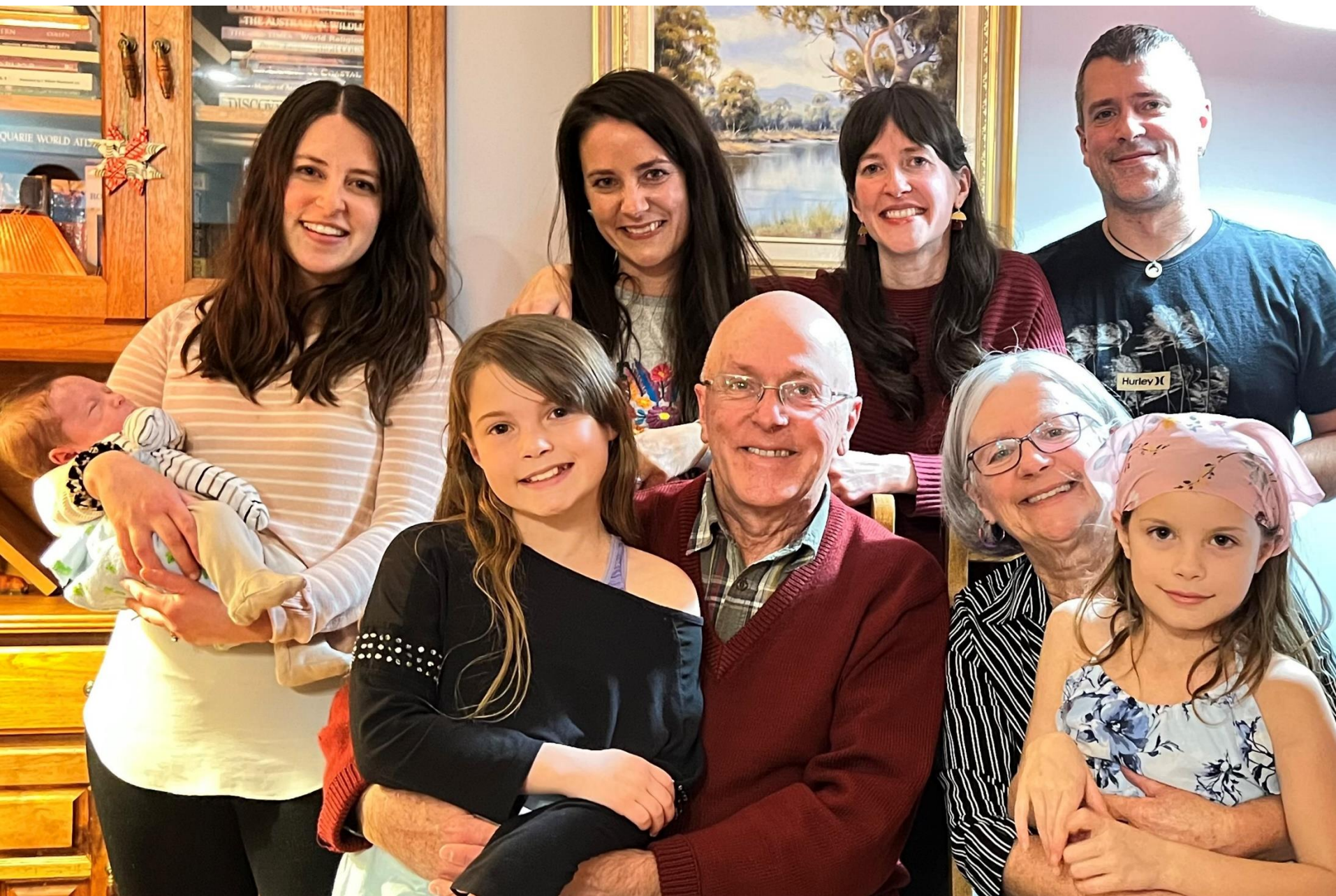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SECOND EDITION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Latin text
promulgated by Pope John Paul II*

contains glossary and analytical index



LIBRERIA EDITRICE VATICANA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과 결심을
수반하는 것.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215/1220)-성 프란치스코,
생활 지침(1221) - 교황 호노리오 3세,
산위에서 (1289) - 교황 니콜라오 4세,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아들 (1883) - 교황 레오 13세,
세라핌 천사적 사부 (1978)- 교황 바오로 6세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4조

음악: Debbie Tessier

후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사랑과 진리의 회칙,

하느님을 찬양하라, 단순함 으로 축복하라,

성령이여, 프란치스코와 함께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만드십시오

1. 회개는 많은 열매를 맺고, 회칙은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
매일의 회심, 우리가 한 약속을 새롭게 합시다!
2. 교회의 은총과 성모님의 보호아래, 형제회에서의 삶, 글로벌 가족,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킵시다!
3. 이런 생활 양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통합의 불리움을 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한 약속을 나눕시다!



A photograph of a rusty anchor on a sandy beach with the sea in the background. The anchor is made of dark, weathered metal and is partially buried in the sand. The background shows a calm sea under a clear sky.

80
YEARS
MEMORIALE
PROPOSITI
(1221-2021)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 에서*
현재의 회칙까지

**800 여년의
복음적 생활의
삶을 살기**



형제회

생활 지침

제 19조

현재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13조 & 제24 조



단순함

생활 지침

제 1~3 조

현재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11조



가족

생활 지침
제18조

현재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17조



화해

생활 지침

제 15조

현재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7조



기도

생활 지침
제 7조 &
제 12조

현재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8조



평화

생활 지침

제 16조 & 제 26조

현재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19조



희년! 선택을 기뻐하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후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에 우리는 간다.
어떠한 여정이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도 우리는 함께 간다.

1. 우리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라 부르시네.

2. 우리의 하느님은 희망의
하느님, 자신의 것은 절대
아니 잊으시고, 우리가
미지의 곳으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네

3. 우리의 하느님은 기쁨의
하느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형제회를 주시어 우리를
도우시네



A photograph of a rusty anchor on a sandy beach with the sea in the background. The anchor is made of dark, weathered metal and is partially buried in the sand. The background shows a calm sea under a clear sky.

80
YEARS
MEMORIALE
PROPOSITI
(1221-2021)